

“구제역 막자” 휴일반납 총력전 “멈추면 손해” 실패없는 용광로

전원 비상근무 전남 방역공무원

설 연휴가 더 빠른 사람들

산업현장의 침병 광양제철 직원들

방역 담당 직원들은 이번 설을 맞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명절 준비를 해왔다. 22개 시군에 있는 공항과 항만, 터미널 등 설을 맞아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발판 소독기를 놓는 것이다. 귀성객들이 가급적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문 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역시 남의 이야기다. 구제역이 유입되거나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도간 경계 및 도내에 설치해 둔 방역초소 310여곳과 도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 농림식품국 전 직원 120여명은 내달 6일까지 22개조로 나뉘어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사실상 이번 설 연휴는 없는 셈이다. 연휴 동안

고작 하루 정도 집에서 쉬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설 선물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일찌감치 고향 방문이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포기했다. 몇몇 직원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친·인척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번 설에 구제역이 도내로 유입될까 노심조사하는 축산농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구제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작업에 몰두하기로 했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권두석 사무관은 “구제역과 AI 때문에 전 직원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설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모처럼 주어진 연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가족 전염병에 사활을 건 만큼 시민들도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설 연휴가 나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설 연휴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남도 및 22개 시군 방역담당 직원들과 연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 역시 이번 설 연휴에도 일손을 멈출 수 없다. 전체 직원 6200여명 가운데 2400여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다른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연휴 동안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찾을 때 이들은 비자빔을 쓸게 하는 고로의 뜨거운 열과 씨름한다. 제철 공정의 특성상 제강의 첫 단계인 고로(용광로)에서 24시간 쇳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응고해 용광로가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로가 멈추면 막대한 보수비용과 시간이 드는 등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연관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고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쇳물을 받아 제강(순도 높은 쇳물을 만드는 공정)·연주(쇳물을 널빤지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압연공정

(쇠를 눌러 압축하는 것) 등을 연쇄적으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 고로는 쇳물을 뽑아내기 시작한 지난 1987년 이후 24년 동안 보수기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멈춘 적이 없다. 광양제철 근로자들이 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철강이 자동차·선박·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자재로 쓰이기 때문이다. 철강 공정이 중단되면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미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제철 산업 근로자들은 연휴는 물론 휴일도 잊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며 “직원들이 산업현장의 침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33) 김장두



수입 오징어 국내산 둔갑

여수해경 업무 불잡아

여수해양경찰은 28일 수입 오징어를 국내산과 섞어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려 한 정모(51)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구입한 칠레산 냉동 오징어 2t 가운데 1t 가량을 지난 20일 여수시 오천동 자신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국내산 오징어와 혼합,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이만의 장관 ‘친자확인’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A(여)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심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4)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부킹녀 협박 돈 빌리고 차랑 빼앗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값지 않고 차랑까지 빼앗아 팔아 넘긴 30대가 경찰서행.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한모(31·남구 금호동)씨는 지난 13일 김모(여·25)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고, 김씨의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까지 가져가 대부업자에게 8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달 말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숙청 ‘부킹’을 통해 만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한씨가 처분한 물건들 모두 회수한 뒤 김씨에게 전달.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공기 질 양호한데 살균기 설치 11억 낭비”

감사원, 전북 교육장 등 징계 요구

전직 전북교육감 시절 공기 질이 양호한 학교에 공기살균기를 무리하게 설치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당시 담당 과장과 연구관이 징적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교육장과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9년도 전북도교육청의 공기살균기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살균기를 설치한 51개 학교 중 50개 학교의 공기 질이 양호한데 불필요하게 살균기를 설치해 11억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이들의 징계(징적처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승철기자 k0765@

주말·휴일 눈

광주·전남 강추위 계속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은 눈이 내리고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주말인 29일 오전부터 서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추위야 물렸거라 28일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 기차마을 썰매장에서 가족들이 전통썰매를 지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바비리’ 강희락 전 청장 구속 ‘그랜저 검사’ 실행

이길범 전 해경청장·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영장 방침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8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여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뇌물수수)로 강 전 경찰청장을 구속 수감했다. 전·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수치감 과실사건’의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이무영 전 청장이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강 전 청장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최근 수사 동력이 한풀 꺾였던 ‘함바 비리’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기소까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에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함바 비리’에 연루된 의

혹을 받고 있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SH공사 사장을 지낸 2007년~2009년 브로커 유씨로부터 ‘SH공사 건설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

‘경찰 어머니’ 살해 용의자는 아들

대전 둔산경찰 체포

대전 둔산경찰은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2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서 어머니를 발 등으로 폭행해 사건 발생 6시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헬멧을 쓴 채 강도로 위장해 어머니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다”며 다시 어머니의 집을 방문, 어머니와 안방에서 함께 잤으며 다음날 오전 6시에 어머니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에 대해 “내가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